

지금 아니면 안 될 순간을 위해

그래픽 디자이너 다은 '언제 가도 좋을 여행, 유럽' 발간

"수많은 여행자는 말한다. '여행은 첫 시작이 어려울 뿐, 한 번 다녀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쉽게 다가온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쉽다'는 말은 아마도 '여행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큰 마음 먹고 다녀온 여행을 통해 내가 얻은 건 그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는 '용기'였다"

그래픽 디자이너 다은이 '언제 가도 좋을 여행, 유럽'을 냈다. 그녀에게 유럽 여행은 언젠가 해보고 싶은 꿈 같은 것이었다. 대학 졸업 후 학자금대출 4000만원, 집안의 빚, 취업·결혼·신혼집 대출까지 일상에 허덕였다. 해외 여행은 패키지로 노년 부부들과 함께 다녀온 신혼여행이 다였다. 결혼 3년 만에 유럽으로 떠나고, 다음해에 두번째 유럽 여행을 계획한다.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델프트에서의 여행담이 담겼다.

"빛을 조금 더 천천히 깊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 'You

only live once(당신의 인생은 한 번 뿐이에요)' 이 문장이라면 지금의 내 마음을 대변해줄 것 같았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다'는 말은 뻔한 말이지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말이라는 걸 모두가 아니까. 여행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권과 숙박료를 카드로 결제(한빛이 더 생긴) 순간부터 우리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빛이 생겼다"

"육심 가득한 계획을 세운 채 여행을 떠나면 평소엔 없던 체력이 저절로 생겨난다. 여행만 가면 생기는 이상하고 신비한 힘이다. 평소엔 하루에 만 보만 걸어도 다음날 안 쉬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체력이 바나나는 내가 여행만 가면 이만 보는 거뜨히 걷는다. 남편은 이런 나를 보고 마치 7살 난 어린이가 같다고 했다"

저자는 "여행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바람막기에



따라 언제든 특별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280쪽, 1만5000원, 피톤치드 /뉴스

시민중심의 문화적 공동체 육성한다

남원시, 도시문화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남원시 문화도시사업 추진위원회는 2019년도 남원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인 '도시문화 아카데미' 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생을 모집한다.

남원시 도시문화 아카데미는 문화를 통해 시민들이 발전함을 물론 교육을 통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전국 단위로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를 진행 선정했으며, 이 단체는 게이미피케이션, 방송 미디어 및 저널리즘 관련 콘텐츠, 판소리, 검무 공

연, 목공예 교육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로 구성했다.

오는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총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도시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구도심을 배경으로, 도시의 변화를 담은 게임을 만들어 도시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인 남원마을 시선1 청년, 건물주가 되다, 무예(검예도)를 수련하는 동화의 길잡이 용담검무 공연, 현지 방송인들과 함께하는 미디어 저널리즘 강의 및 문화 다큐 실습 프로그램인 PD와 함께하는 미디어 스톱, 시민기자 양성을 위한 기사작성법 및 사진교육 프로그램인 시민

기자 아카데미, 국악 꿈나무 육성을 위한 판소리·민요·창극 교육 프로그램인 대한민국 청소년 판소리 합창단, 내 집에 필요한 소품 제작 및 목공예의 기본 방법을 습득하고 디자인하는 내 집 꾸미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모두 무료이고, 신청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로는 남원시 문화도시사무국(063-635-0107)으로 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중심의 문화적 공동체를 육성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남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마음애 자비를! 세상애 평화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12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표어로 '마음애(愛) 자비를! 세상애(愛) 평화를!'을 선정했다.

봉축위원회는 2017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의 기본 슬로건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사용해 오고 있다. 매년 봉축표어는 별도로 선정한다.

위원회는 "올해 봉축표어는 부처님이 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극복하고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회 주요행사도 펼쳐진다. /뉴스



"균형 잡힌 전주만의 프로그램 선보일 것"

전주국제영화제, 문성경 신임 프로그래머 영입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 중남미 주재원 출신의 문성경 씨를 신임 프로그래머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프로그래머는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 남미 코디네이터, 2013년 중남미 주재원을 역임했으며 중남미 최대 규모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영화제'를 창설하는 등 중남미에 한국영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얻었다.

2004년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에서 영화계 이력을 시작한 문 프로그래머는 2009년부터 2년간 전주프로젝트마켓에서 다큐멘터리 피칭을 담당했다. 이후 인천



다큐멘터리포스트 프로젝트팀장을 맡아 탄탄한 경험을 쌓았다. 그녀의 기획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매거진 '도킹(DOCKING)'의 에디터로도 활동 중이다.

올해 열리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문 프로그래머와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 이상용·장병원 프로그래머 4인 체제로 치러진다.

이충직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문성경 프로그래머의 기획력이 탁월하다"면서 "국내외 영화제와 영화 산업계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문 프로그래머와 더욱 균형 잡힌 전주만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영화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뉴스

수상한 저택 초대된 5인, 데이비드 미첼 '슬레이드 하우스'

"슬픔은 절단이지만, 희망은 치유되지 않는 혈우병이라 피를 흘리고 흘리고 또 흘린다. 희망은 결코 열 수 없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다"

영국 작가 데이비드 미첼(50)의 '슬레이드 하우스'가 번역·출간됐다. 미스터리한 대저택 '슬레이드 하우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호러소설이다.

슬레이드 앨리는 높다란 벽돌담 사이로 이어지는 좁고 어두운 골목이다. 그곳에는 9년마다 한 번, 10월 마지막 토요일에만 나타나다 사라지는 검은 철문이 있다. 그 안으로 들어서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정원과 고공스러운 저택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 환상의 저택에 1979년부터 2015년까지 30여년에 걸쳐 5명의 손님이 초대된다.

평범해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어린 소년, 매사에 불만이 가득한 닳고 닳은 형사, 마음에 상처를 한가득 품고 있는 대학교 초현실 동아리의 신인 회원, 미스터리한 저택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기자, 심령 현상을 철석같이 믿는 '잠재적 환자'의 손에 이끌려 온 정신과의사다.

처음에 이들은 어마어마한 저택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내 그곳을 떠날 수 없음을, 화려한 풍경 뒤에 그들의 영혼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된다.

"유령을 한 번만 본다면 알게 되겠지. 죽음이 끝이 아닌 하나의 문이라는 걸. 그 문의 반대편에는 조니가 있을거라는 걸"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게 있다면 바



로 죽을 아니던가요?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었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존 본능이고, 젊은 시절에는 그 본능이 쓸모 있지만 나이가 들면 저주가 돼요"

미첼은 "각 장의 이야기는 모든 유럽 서사가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조금씩 다르게 답한다"고 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 초현실적인 존재가 있는가?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가?"

이진 옮김, 304쪽, 1만3800원, 문학동네 /뉴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